

한국 작곡가의 작품으로 음반 출반 **클라라 민**



비영리 단체인 NYCA(New York Concert Artists & Associates)의 예술감독인 피아니스트 클라라 민이 카네기 데뷔 오디션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아마하 아티스트에서 펼쳐진 오디션은 다양한 레벨을 가진 참가자들의 연주로 한국에서의 오디션으로는 의미있는 첫 시작을 알렸다. NYCA는 클라라 민을 비롯해 제프리 스완과 에두아르트 질베르칸트를 주축으로 2008년 여름에 설립되었으며, 명예위원인 제임스 토코(James Tocco)까지 합류해 현재 5명이 이끌어 가고 있다.

“카네기 홀 데뷔 오디션은 한국과 뉴욕, 파리에서 펼쳐지는데, 이번 한국에서의 오디션은 다양한 레벨의 참가자들이 참여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데뷔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 무대매너,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지요. 데뷔무대 심사기준은 준비성, 무대 매너, 프로그램의 참신한 아이디어, 신선도,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의 의도와 연주가로서의 자기만의 색깔이 어우러져 잘 드러나는지, 또 말하고자 하는 자신의 음악적 주관/statement을 전체적으로 잘 표현해 냈는지에 대한 곡 해석능력을 중요시 하며 심사를 했습니다.”

클라라 민은 ‘NYCA는 젊은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공연 또한 기획을 하지만 매니지먼트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른 회사와 다른 점은 우선 피아니스트들이 함께하여 모든 회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NYCA는 다양한 행사들을 펼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뉴욕 타임즈>와 뉴욕의 클래식 라디오 스테이션(WQXR, WNYC) 등에도 소개되었다.

“정말 좋은 연주자는 자신의 예술 속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반영하고, 청중과 함께 음악을 공감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를 함께 나누고 사회에 더 좋은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최근 한국 작곡가들인 윤이상·진은숙을 비롯해 박영희·강석희·최우정·김정길 등의 피아노 작품을 담은 음반을 나소스 레이블에서 녹음해서 음반을 발매했다. 특별히 올해 클라라 민은 시카고 데뷔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녹음하는 과정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훌륭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제 연주로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의미있었구요. 데뷔무대를 위해 American song writer Stephen Foster의 수많은 노래들의 테마를 바탕으로 한 Character pieces를 미국 작곡가인 Henry Martin에게 의뢰했습니다. ‘Vision for America, Fosteriana’라는 전체 테마로 한 시간 분량되는 피아노를 위한 character pieces가 작곡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클라라 민은 3월에 베를린 필하모니홀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할 예정이고, 6월에 아르메니안 필하모니와 리스트 서거 200주년기념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연주, 10월에는 페어뱅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슈만 콘체르토 협연이 예정되어 있다. 독주회로는 시카고 데뷔를 비롯해 뉴욕근교에서 몇 차례 연주가 있고, 뉴욕의 아마하 센터에서 NYCA주최 리스트 서거 200주년 기념 콘서트 시리즈가 다섯 차례에 걸쳐 있을 예정이다.

글·국지연 기자